

인 사 말 씀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제30차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오늘, 가산 지관 전 회장님의 뒤를 이어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입니다.

미력하나마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 하고자 하니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977년 한·일 양국의 불교계 유지에 의해 불교를 통해 상호간의

불교홍륙과 우호친선을 추진하는 목적으로 불교문화교류의 조직이 구성되어 제정 발족된 이래 2009년도에는 대회 30주년을 기념하여 여주 신륵사에 인류화합공생기원비를 건립하여 장년기에 접어든 기상을 만천하에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년기다운 기상을 앞세워서 양국불교의 홍륙과 우호친선, 불교문화교류의 활발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큰 재난을 당해 고통속에 있는 아이티 지진참사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우리 모두
부처님의 자비사상으로 그들에
게 지원과 용기를 북돋아 줍시다.

끝으로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올해도 여러분들에게 자비광명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4년 1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